

## 작물보호협, 「농산물 및 농약안전성 세미나」 개최

### 6. 23,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 회원 120명 대상

한국작물보호협회(회장 염병만)가 올해도 도심지 여론 주도층에 대한 우리 농산물 및 농약안전성을 바로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작물보호협회는 지난 6월 23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 회원 120여명을 대상으로 우리 농산물 및 농약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돕는 「농산물 및 농약안전성 세미나」를 가졌다.

청주 한마음웨딩홀에서 개최된 이번 세미

나의 제1부 강사로 나선 경북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 김장익 교수는 강의를 통해 농약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의 오류와 농약의 역할 및 필요성, 안정적 식량 확보의 중요성, 농산물 안전성 관리체계 등에 대해 중점 설명하고 올바른 인식과 역할을 당부했다.

이어서 열린 제2부 레크레이션 행사는 「농산물 및 농약안전성 세미나」 강의 내용을 토대로 즉석 퀴즈문제를 내는 등 문답의 시간을 통하여 강의내용에 대한 이해 및 집중력을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작물보호협회는 또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농업연수원에서 실시되는 '초등교원농업탐방 연수과정' 교육에 참여하여 서울시 및 경기지역 초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우리 농산물 및 작물보호제 안전성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 농진청, 「농식품 안전성 향상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이 선진국의 농식품 유해물질 관리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농식품안전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환경농학회 공동 주관으로 오는 7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 동안 aT센터에서 개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농식품 중 유해물질 위해평가 및

관리정책', '첨단 NT·BT 기술융합을 통한 농식품 안전성기술' 및 '광우병·AI 등 인수공통전염병 방제기술' 3개 분야별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주제발표에는 미국 퍼듀대학 Dr. Arun Bhunia, 일본 농림수산성 Kenji Asakura, 중국 농업과학원 Yong-Guan Zhu, 서울대학교 유한상 교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정석찬 박사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농식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한다.

## 경농, 소외이웃에 '사랑의 쌀 나누기' 전개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전국 40여개소 방문  
우리 쌀 전달 및 봉사활동으로 나눔 경영 실현

지난 2005년부터 소외된 불우이웃에게 우리 쌀을 전달하며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주)경농(대표이사 이병만)이 올해도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경농은 지난 5월 △대구 월성종합복지관, 본동사회 복지관 △경주 성애원 △광주 애일의 집, 세광원, 보람의 집 △순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성신원, 한국 시각장애인협회 △안동 경



안신육원, 프란치스코, 장애인협회 △제주 제남아동복지센터, 흥익아동센터 등 전국 14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정성이 깃든 우리 쌀을 전달하는 한편 복지관 및 보육원의 밀린 빨래와 시설물 정비, 목욕 돕기, 음식 만들기 등 다양한 도움의 손길을 제공함으로써 소외된 불우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경농의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은 나눔경영, 사회공헌



의 경영철학과 임직원의 봉사활동 활성화, 그리고 우리 쌀의 소비 확대라는 취지에서 지난 2005년 시작되었으며, 주로 가정의 달인 5월과 불우이웃돕기의 달인

12월에 실시하고 있다. 경농은 지난 4년간 전국 150여개소를 방문, 우리 쌀 20kg 1만여 포를 전달하였으며,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농 임직원의 수는 총 2천여명에 달하고 있다.

한편, 경농은 올해 총 37개소를 방문하여 우리 쌀과 다양한 봉사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방문처와 봉사활동 참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02-3488-5986>.

또한, 농식품 안전관리에 관심이 많은 농업인 및 소비자단체, 관련기관, 대학 등 약 500여명이 자리를 함께 할 예정이다.

흥무기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장은 "최근 멜라민, 석면 탈크 등 식품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안전농산물 생산 및 관리에 한걸음 나아가는 한편, 농식품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에 산·연·관이 힘을 모아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주력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 한국삼공, 살포 편리한 '정제' 시연회 열어

한국삼공(주)(대표이사 : 사장 한태원)는 지난 6월 1일부터 17일까지 전국 8개 지역에서 기존 제초제 타입과 전혀 다른 정제 (Tablet)타입의 논잡초약의 시연회를 갖고 정제의 장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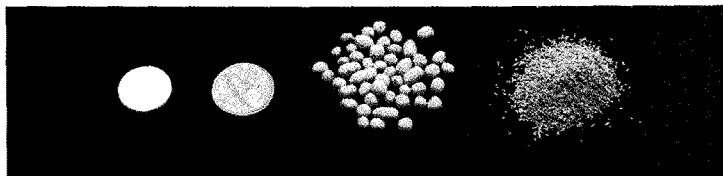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살포시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농약 제형개발을 위해 다년간 노력해 온 한국삼공은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타입의 제형을 개발하고 기술 완성단계에서 지도기관 및 농협 관계자와 함께 이번 현장시연회를 갖게 되었다.

이번에 처음 선보인 부유확산타입 정제 논잡초약은 10a(약 1,000㎡)당 250g 사용하도록 만들어졌다. 이는 기존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3kg 입제보다 1/12 적은 약량으로 같은 효과를 나타내며, 250g 1봉에 약 2g

짜리 125정으로 구성하였다. 1정의 크기는 높이 약 5mm, 지름 약 20mm 정도의 바둑알 모양이며, 타원형의 원반모양으로 누구나 논둑에서 쉽게 멀리 던질 수 있다. 성인이 한 줌으로 20~25정 정도 잡을 수 있어 10a의 경우 10~12회만 논둑에서 던져 넣어 살포하면 제초제 살포를 간편하게 끝낼 수 있다.

또, 40a(약 4,000㎡)이하의 경우는 논 속으로 들어갈 필요 없이 논둑을 돌면서 살포할 수 있어 힘든 제초작업을 간편하게 마칠 수 있다. 살포 3초 후면 물 위에 떠올라(부유) 스스로 확산되는 타입으로 만들어져 살포 후 살포한 자리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국삼공 흥두화 전무는 "한국삼공은 지금까지 이양동시처리제, 액상수화제, 입상수화제, 부유확산성입제 등 농업인이 더욱 손쉽게 잡초방제를 할 수 있도록 약제개발에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금번 개발한 부유확산 타입의 정제는 그 개발 역사에 화룡점정(畫龍點睛) 한다는 심정으로 혼신을 다한 결과물임을 확신한다"고 밝히고 "이번 시연회에서 제시된 소중한 의견은 2011년 제품 출시 전까지 충분히 반영, 안전성과 효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부유확산성 정제

부유확산성 입제

일반 입제

## 바이엘, '바스타' 임성훈씨 홍보물 전국 보급

바이엘 크롭사이언스(주)(사장 요그 레바인)가 지난 6월 12일부터 '바스타 액제'를 취급하는 전국 유명 매장에 방송인 임성훈씨를 모델로 한 홍보물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실제 사람크기로 제작된 '바스타' 홍보물은 임성훈씨의 이미지가 '바스타 액제'의 확실하고 안전한 제초 효과와 잘 어우러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바이엘 크롭사이언스는 이

에 앞선 지난 5월 21일 SBS-TV '세상에 이런 일이'의 진행자인 방송인 임성훈씨와 비선택성제초제 '바스타 액제'의 전속 홍보 모델 계약을 맺은바 있다.



## 스미토모, 신임 사장에 '사사야마타모초' 씨 부임



스미토모화학아그로서울(주) 신임 사장에 사사야마타모초(笹山 保, Sasayama Tamotsu)씨가 7월 1일자로 부임하였다.

이번에 취임하게 된 신임 사장은 1946년 일본 출생으로 스미토모화학아그로서울(주) 부임 이전에는 스미토모화학(주)의 일본 내 자회사인 (주)일본 green & garden에서 임원으로 근무를 하였다.

한편 지난 2004년부터 2009년 6월 말까지 5년 동안 스미토모화학아그로서울(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아라카와 히로유키(Arakawa Hiroyuki) 전임 사장은 스미토모화학(주) 일본 본사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 KC생명과학, 'KC지엔에스' 자회사로 출범시켜

(주)KC생명과학(대표이사 신규식)이 작물보호제 및 친환경자재 유통의 선진화를 목적으로 지난 5월 19일 자회사인 (주)KC지엔에스(대표이사 김장진)를 출범시켰다.

(주)KC지엔에스(KC Green Natural Sales Co., Ltd.)는 '훙(주)팜'을 인수하면서 새로 출범한 회사이며, FMC 및 BASF를 제조사로 하는 수입품목 6개를 보유하고 있다. 주소는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99-7 가락IDE타워 1005호(지하철 8호선 가락시장역 2번 출구 경찰병원방향 3분 이내)이며 전화번호는 02-3401-6387, 팩스번호는 02-3453-6386번이다.

## 태준아그로텍, 사무실 이전

(주)태준아그로텍(대표 박승기)이 지난 6월 5일자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이번에 옮긴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11-3 우림라이온스밸리 606호이며 전화번호는 031-737-2922, 팩스번호는 031-737-2923번이다. Y